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양성평등 vs 성 평등

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남녀 역할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 같아요. 남자가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아이도 잘 돌보는 모습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여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 안에서도 용감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요즘 사회는 성별에 따라 특별한 역할을 정해 두지 않고, 양성성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양성평등이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 맞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성차별이 없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더 나아가서 성(性)을 스스로 선택하는 트랜스젠더나 남녀 구분 없이 결혼하는 동성혼은 어떻게 보아야 하죠? 이것도 성에 대해 평등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봐야 하나요? 남녀 구별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도 성에 대한 평등인지 궁금해요.

A.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먼저 양성평등과 성 평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말했듯이 양성평등은 좋은 것입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이지요.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요. 우리 친구가 예로 든 가사와 양육의 경우도 남녀 상관없이 서로 힘을 합쳐야겠지요. 요즘은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으로 양성성을 다 갖춘 사람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화된 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남녀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려면, 성 역할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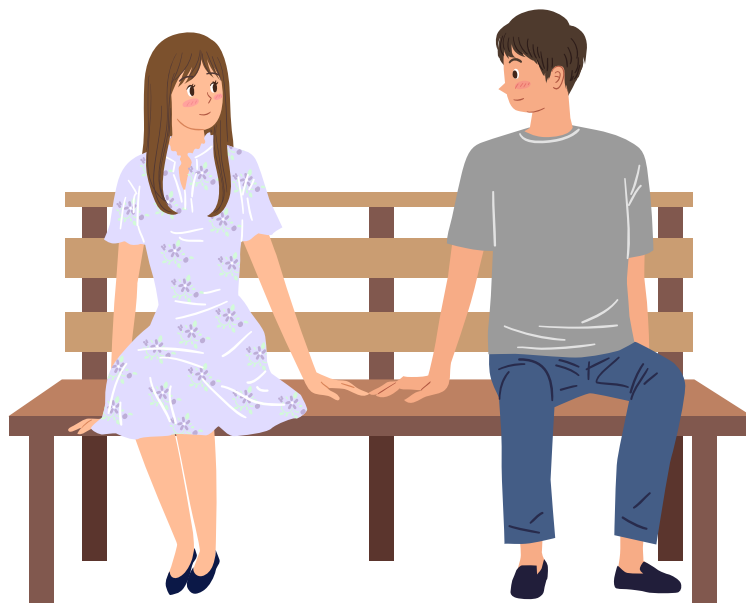


그런데 이 양성평등의 개념이 잘못 발전하면, 성 평등이란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 평등은 아주 급진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물학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가정과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 전환 수술을 받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일이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남녀의 역할 구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با와 엄마 대신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자녀를 돌보는 상황도 상상해 보시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 평등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정과 사회의 부리가 더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원래 세상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도 함께 주셨지요. 하느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잘 지키면 누구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질서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명에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사람이 생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조. 둘째로, 남성성과 여성성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고유의 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물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내가 내 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의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의 차이는 존재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다르기 때문에 더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녀의 몸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자의 몸은 생식을 위해 일정한 주기를 가지지요. 남자는 여자처럼 생식 주기가 일정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인 호르몬 분비, 2차 성징 때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도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와 배려, 존중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닐까요?

성을 영어로는 ‘섹스(Sex)’ 혹은 ‘젠더(Gender)’라고 합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인 차이에 바탕을 두고, 남녀의 다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젠더는 사회 안에서 이해되는 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에서 성 역할 차이를 없애다 보니, 생물학적인 차이도 없어져야 한다는 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을 없애고 잘못된 성 평등을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 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삶에서 인간적인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차원의 인간 정체성과 정서적 친밀을 조장하는 교육 계획과 입법을 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56항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